Interview

회원 이익 도모 & 국내 패키지디자인산업 중추적 역할

학회원이 참여하는 학회, 봉사하는 학회로

박 봉 래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회장

지난 5월 1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 '스포타임' 오렌지 룸에서 개최된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 제6기 정기총회에서 2005년 5월 15일까지 향후 2년간 학회를 이끌어 갈 제 6대 학회장에 박봉래 한양여자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박봉래 회장은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는 시점에 맡게되어 더욱 큰 책임을 느끼며 전임자들이 이룬 치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가치에 맞는 학회로 거듭나게 하는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라며 "무엇보다도 학회원이 참여하는 학회,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봉사하는 학회로 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소감을 대신했다.

박 회장이 처음 포장과 접하게 된 것은 시각디자인의 일부로만 다루어졌던 시절 공업(제품)디자인을 전공 한 뒤 80년대 초이다. "최근 포장디자인의 영역이 확대되어 대학에서도 패키지디자인, 브랜드패키지, 그래픽패키지전공 등 그 개설의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라며 "그러한 까닭에 저는 첫 직장부터 제품개발파트에 배속되어서 신제품 개발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당시 마땅히 동일 컨셉이어야 할 제품의 용기디자인과 포장디자인의 관장 부서가 다르고, 담당 디자이

너를 달리하는 이원적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발과 제작부서 간의 협력 여하에 따라 변수가 많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상품디자이너는 용기와 패키지디자인을 동시에 관장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에서 겪은 저의 관리자 신조이고 일원적인 구조로 개선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박 회장은 강조했다.

패키지디자인학회는 1993년 5월 15일 창립된 전국 규모의 상품디자인 전공 대학교수 중심의 학술단체로서 현재 167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학회는 상품디자인과 상품문화의 올곧은 정립과 창달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해 학술연구의 지속적인 추구와 제13호 논문집, 11호 회보를 발간한 바 있고, 지금까지 5회에 걸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오는 6월 11일에는 대구대학교에서의 동 대학 산업디자인연구소와의 공동으로 제6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매년 그 해의 베스트패키지디자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베스트패키지디자인컴패티션을 1995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의 학회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의 이익 도모는 물론 국내 패키지디자인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로 자리잡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 그 자체를 생각하는 신뢰의 디자인을 가장 중요점으로 꼽고 있는 박 회장은 국내 포장디자인에 있어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공동으로 원료를 구매하고, 공동으로 포장재와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공조체제를 갖추는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포장산업계가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기반 인프라로 활용하고 특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발전의 요체이며 구성원간의 신뢰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선행되어야 할 일이고 외면과 질시, 냉소가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디자인은 이제 통념적 가치가 되었다. 대학마다 앞 다투어 디자인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매해 엄청난 양의 디자이너를 양산하는 이른바 디자인 통속화의 과정에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 회장은 "포장디자인을 교육하여야 할 표준 교과과정과 매뉴얼의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며 산업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산업체, 지역특성에 맞춘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졸업과 동시에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특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학회는 기념 이벤트행사의 일환으로 2003 베스트패키지디자인 대학생 공모전을 오는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섬유연합회관 2층 전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원의 연구작품전도 동시에 개최할 것이며 회원의 작품전은 지속사업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인 학회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 포장디자인 발전이 이룩되길 기대해 본다. ko

권해진 기자